東大新聞

發行人 金 東 益
編輯人 李 敏 昌
主 幹 宋 [illegible]

發行所
서울市中區筆洞 3 街 [illegible]
東國大學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㉓3130~[illegible]
本社直通 ㉒8498

每週一·木曜日發行

金總長, 9일 渡美

「아이오아」州立大學과 姉妹結緣次

○…金東益總長은 美國名門大學으로 널리 알려진 「아이오아」 州立大學의 초청을 받아 ○…과 본교와의 자매결연을 맺기위해 「아이오아」 大學의 자매결연식에는 金東益·체이스」 財團理事長인체 ○…9일 오후2시 婦人 金仁淑女史와 노스웨스트機長 旅駐美代表와 金溶植駐UN 이스박사의 적극적이고도友 ○…金總長은 美國에서 체류하는 동안 東大在美後援會의 代使도 참석할 예정인데이 好的인 추선과 同財團에근 ○…躍的인 東大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접촉을 벌리고 6월초에 귀국할 ○…예정이다.

이번 아이오아 州立大學 姉妹결연은 67年度부터 「하워등 미「클라프·류보디」 사장은 본교 등문의 努力으로 이루어지 라이트헤드」 사장은 본교 와「아이오아」 大學間의 學 게 된것이다 問교류를 위해 2高弗을 희 이번 金總長의 사랑으로써 在美 本校후원 渡美후姉 妹결연식이 이아오아大學에 서 끝나면 ①제휴 ②식이 끝난다음 뉴욕에 ③체이스博士와「라이 트헤드」 社長등 美國의 財界人士들과 폭 名士人士들과 폭넓은 交流가 있게된 것은 우리나라 韓國文化 그리고 韓國의 發展이 크게 약속 業大學과의 자매결연도 積信으로 아 성하게 될것이다 ○…金東益총장은 시카고에서 柳永洙등문과 「아이오아」 大學관계자의 영접을받고 결연식에 참석하게되며, 결연 ○…「아이오아」 州立大學 ○…과 본교와의 자매결연을 맺기위해 「아이오아」 大學의 초청을 받아 ○…9일 오후2시 婦人 金仁淑女史와 노스웨스트機長 ○…金總長은 美國에서 체류하는 동안 東大在美後援會의 ○…躍的인 東大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접촉을 벌리고 6월초에 귀국할 ○…예정이다.

教授·學生등交流계획

在美東大後援會도 推進

고적발굴작업 12일부터法光寺서

【박물관】 본교박물관에서는 추계고적발굴작업을 경북영일군 소재 法光寺址에서 12일부터 1주일간 실시하기로 하고 黃壽永박물관장을 비롯해 4명이 12일오전 경북 영일로떠난다.

東國祝典 박두

21~24일, 多彩로운 行事추진

제9회

「아이오아州立大學」 편모

「아이오아」 주립대학은 1847년 2월25일 「아이오아」 주 본교와의 자매결연식 이 학교는 1869년 「아이오아」 대학으로 승격되었다. 현재는 59명 졸업생 10만여명, 在學生 1만8천6백여명이다. 현총장은 「하워드·보웬」 博士이며 문리과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법과대학, 사범대학, 농과대학, 상경대학, 간호대학, 치과대학, 사범대학등 10개단과대학에 68개학과로 구성되어 있고 학교는 1천9백 「에이커」 에 달한다. 또한 연구의 완벽을기 하기 위하여 예술, 언론, 도서관학, 음악, 종교, 사회사업연구소등 7개의 세계적인 연구소를갖고 있으며 중앙도서관과 14개분실을 합하여 1백40만 여권에 달하는 장서를보유하고 있다.

「아이오아」 州立大學과의 姉妹결연식이 끝나면 ①제휴 ②식이 끝난다음 뉴욕에 ③체이스博士와「라이 트헤드」 社長등 美國의 財界人士들과 폭 名士人士들과 폭넓은 交流가 있게된 것은 우리나라 韓國文化 그리고 韓國의 發展이 크게 약속 業大學과의 자매결연도 積信으로 아 성하게 될것이다 ○…金東益총장은 시카고에서 柳永洙등문과 「아 이오아」 大學관계자의 영접을받고 결연식에 참석하게되며, 결연 ○…「아이오아」 州立大學 ○…과 본교와의 자매결연을 맺기위해 「아이오아」 大學의 초청을 받아 ○…9일 오후2시 婦人 金仁淑女史와 노스웨스트機長 ○…金總長은 美國에서 체류하는 동안 東大在美後援會의 ○…躍的인 東大의 발전을 위해 폭넓은 접촉을 벌리고 6월초에 귀국할 ○…예정이다.

開校63周紀念式

8日上午 中講堂서

勤續敎授·職員14名표창

본교 개교 제63주년기념식은 8일오전10시부터 金총장을 비롯하여 朴淇宗이사장, 교직원및 전교생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당에서열린다. 온누리에 大慈大悲하신부처님의 밝은 가르침과 참된 人材양성에 전력하며 반세기가 넘는 장중한 역사를 이어온 본교의 傳統을 되새기며 전한이념을 다짐하며 개교기념식은 표창도 있을것인데 금메달이수여될 것이다.

이번 기념식에서 10년이상 근속교직원의명단은다음과 같다. (괄호안안근속연수)

◇20년이상근속자=徐廷天(20년2개월·보건소)

◇10년이상근속자

經[illegible]

金翊[illegible]

[illegible]

開校紀念辭

總長 金東益

親愛하는 東國人여러분 깊은感謝에잠기는한편, 우리는際伍를 가다듬고 새 時代, 새歷史를 이끌고나갈 知性의 前進基地로서 反省과 決意를다시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大學은 自由王義 敎育制度를 채택 門戶가 크게 開放되어 있는것이 事實입니다. 이에 따라 大學과學生의 性的인 팽창은 불가피했고 엘리트 養成이라는 大學本然의 目的을 完全시키지 못하고 있는 一面도 있읍니다.

반면, 大學의 敎育內容은 學者養成에 主力하는 主知主義的傾向이 농후하여 實利的인 職業準備敎育을 外面할수없는二重性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결국 옛날의 大學이 情熱의 場에 正比例한다고 보는 때문입니다. 知識의 폭 현代는훈히 永遠을指 向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읍니다. 全東大人의 血管에서 약동하는 이情熱이 不滿克服 하시 하시는 自制들앞고 進取的인 氣象을 불돋아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 돐날을 계기로大 學의 傳統계승과 發展이 결코 合理化될수 없다는 믿음입니다. 우리들은 跳躍의 慾慾 에 비해 너무나 취약한 財政의 기반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方法 을 강구하던 본인은 奉職하는 敎職員 여러분의대우개선할것을약속합니다 또한 東國人은 앞으로 海外進出의 시기에 학문의 [illegible] 研究風土를 더욱 [illegible] 敎授와學生들 [illegible] 學者와 [illegible] 學問에 [illegible] 敎育의 [illegible] 敎授·職員 [illegible] 敎育의 [illegible] 敎授·職員 [illegible] 敎育의 [illegible] 敎授·職員

隋性과 安逸로부터 脫皮로 成長期約

—開校 63주년을 맞는 우리의 覺悟

社說

5월 8일로서 우리大學은 開校63週年을 맞이하게 되었다。國內私學에서 맞이하게 되었다。넌지大學의 開校日은 맞이 할 때마다 새삼 되새겨 지는것은 『한방울의 이슬에도 宇宙의 全搖理가 스며 있다』고 한 어떤 西哲의 가르킴이다。

太陽熱이 있으므로 증발된 수분이 다시 적당한 冷氣와 凝集으로 이슬이 되기까지에는 그나름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는 유한한 人材를 사회각계각층에 배출하였고 機構面에 있어서도 7個學大와 2個大學院, 그리고 3處1舍의 방대한 學園이 이땅에 이루어 지는데 있어서도 우리民族의 歷史와 희망, 그리고 운명이 엮혀져 있었던것은 우리의 國史를 反省하면 明白하다。

即 朝鮮王朝 5백年間의 무자비한 抑佛과 無定見한 儒敎一辺이 가지고 왔던 그무서운 結果는 극심한 사상적빈곤과 이로 인한 부질없는 당쟁의 악순환, 그리고 민족적 주체의식의 鈍化였다。누구도 이를 부정하지 못할것이다。

우리 大學의 前身인 明進學校가 佛敎의 재건이 敎國의 길이라는 굳은신념에서 東大門밖 元興寺에서 고고聲을 울린 1906年은 바로 儒敎一辺이 가지고 온 폐단이 누적되어 國祚의 단절이 朝夕으로 닥게 오는 초비상시였다。

심오한 學理로서 사상적빈곤을 타개하고 無我觀의 哲理를 근본요지로 하는 佛敎의 재건은 당시의 閉鎖的이고 身分社會를 匡正하는데 不可缺한 요소일뿐 아니라 羅代以來 韓國佛敎에 連綿히 계승되어 오던 儒敎理念은 또 鈍化된 주체의식의 소생에 활력소가 되는 것이어서 佛敎의 再建은 당시에있어서 가장 절실한 민족적요청이었다。

屈辱과 隱忍의 5백년을 세속적인영화와 명성을 등지고 反對給付없는 布施와 庶民敎化慨嘆으로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深山幽谷에서 겨우 지켜 오던 僧團이 이제 國難救念의 一念에서 그 行動부절을 도시로 진출시키는 처절함으로서 明進學校를 창설한것은 大覺醒을 이루었을뿐 아니라 佛敎가 韓國文化에, 民衆敎化에 중요한 요소가되었어서 있는것이 긍정되는 우리大學의 開校日인 5월8일은 비단 우리大學과 敎團의 祝日뿐 아니라 全國民도 그날을 나누어 같이 하여야할 날인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 學園에 주어진 사명이 그리 낭만하게 그 밝아나가는 길도 험난하다는 것은 각오하여야 하겠다。開校直後에 우리는 亡國의 쓰라림을 겪었고 國權喪失과 더불어 日帝의 무자비한 소위 朝鮮統文化말살을 이어 우리學園에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佛敎宗團이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佛敎宗團이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이와같이 큰데 비례하여 그 밖아나가는 것은 우리는 亡國의 쓰라림을 겪었고 國權喪失과 더불어 日帝의 무자비한 소위 朝鮮統文化말살을 이어 우리는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유학과 소위 朝鮮寺刹숭의 악법으로 엄격한 유혹적치하에서 가냘픈 法燈을 이어 나가는 일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의 佛敎宗團이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統文化들 이어왔던것은 本學園의존재와 그활동에 크게 기여함이었다。

우리大學과 敎團의 이러한 공적은 우리學生들이 흑은 민중의 서로에서, 혹은 해외와 寒村에 이르기까지 佛敎精神을 깊이 심어 주었고 그리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한국의 文化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처절한 노력이 있었다。

8·15의 民族解放으로 2차大戰末에 되찾게 되었던 우리한민족은 다시 체의식의 활동을위하여 반갑기 이루었다。그러기에 一般國民은 本大學의 활동과 발전에 끊임없는 박수와격려를 보내는데 인색하지 않았던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本大學에 對한 一般國民의 관심이 크면 클수록 사명감이 가중되고 이 加重된 使命感에 威壓되어 자칫하면 자기본연의 자세조차 망각하고 거센 세파에 휩쓸려 校道를 나가는 위험도 없는 것은 아니다。

特히 해방후에 몰밀려 오듯 들어오는 서구문물일체의 풍조는 자칫하면우리의傳統文化를 멸시하는 경향으로흘러 우리 自身의 사명감이 흐려져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학적인 태도를 취하는수가 전연 없지 않었다。그 언덕에 있어서 우리大學에서 과고 들어가는 정신적 바이러스는 우리大學에서 용감히 소멸시켜야 하겠다。

순학, 그리고 민족적 주체의식의 鈍化였다。

우리 大學의 前身인 明進學校가 佛敎의 재건이 敎國의 길이라는 굳은신념에서 東大門밖 元興寺에서 고고聲을 울린 1906年은 바로 儒敎一辺이 가지고 온 폐단이 누적되어 國祚의 단절이 朝夕으로 닥게 오는 초비상시였다。

심오한 學理로서 사상적빈곤을 타개하고 無我觀의 哲理를 근본요지로 하는 佛敎의 재건은 당시의 閉鎖的이고 身分社會를 匡正하는데 不可缺한 요소일뿐 아니라 羅代以來 韓國佛敎에 連綿히 계승되어 오던 儒敎理念은 또 鈍化된 주체의식의 소생에 활력소가 되는 것이어서 佛敎의 再建은 당시에있어서 가장 절실한 민족적요청이었다。

屈辱과 隱忍의 5백년을 세속적인영화와 명성을 등지고 反對給付없는 布施와 庶民敎化慨嘆으로서 우리의 전통문화를 深山幽谷에서 겨우 지켜 오던 僧團이 이제 國難救念의 一念에서 그 行動부절을 도시로 진출시키는 처절함으로서 明進學校를 창설한것은 大覺醒을 이루었을뿐 아니라 佛敎가 韓國文化에, 民衆敎化에 중요한 요소가되었어서 있는것이 긍정되는 우리大學의 開校日인 5월8일은 비단 우리大學과 敎團의 祝日뿐 아니라 全國民도 그날을 나누어 같이 하여야할 날인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 學園에 주어진 사명이 그리 낭만하게 그 밝아나가는 것은 우리는 亡國의 쓰라림을 겪었고 國權喪失과 더불어 日帝의 무자비한 소위 朝鮮統文化말살을 이어 우리는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佛敎宗團이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이와같이 큰데 비례하여 그 밖아나가는 것은 우리는 亡國의 쓰라림을 겪었고 國權喪失과 더불어 日帝의 무자비한 소위 朝鮮統文化말살을 이어 우리는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유학과 소위 朝鮮寺刹숭의 악법으로 엄격한 유혹적치하에서 가냘픈 法燈을 이어 나가는 일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의 佛敎宗團이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統文化들 이어왔던것은 本學園의존재와 그활동에 크게 기여함이었다。

우리大學과 敎團의 이러한 공적은 우리學生들이 흑은 민중의 서로에서, 혹은 해외와 寒村에 이르기까지 佛敎精神을 깊이 심어 주었고 그리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한국의 文化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처절한 노력이 있었다。

8·15의 民族解放으로 2차大戰末에 되찾게 되었던 우리한민족은 다시 부당하게 폐쇄되었던 우리한민족은 다시 체의식의 활동을위하여 반갑기 이루었다。그러기에 一般國民은 本大學의 활동과 발전에 끊임없는 박수와격려를 보내는데 인색하지 않었던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本大學에 對한 一般國民의 관심이 크면 클수록 사명감이 가중되고 이 加重된 使命感에 威壓되어 자칫하면 자기본연의 자세조차 망각하고 거센 세파에 휩쓸려 校道를 나가는 위험도 없는 것은 아니다。

特히 해방후에 몰밀려 오듯 들어오는 서구문물일체의 풍조는 자칫하면우리의傳統文化를 멸시하는 경향으로흘러 우리 自身의 사명감이 흐려져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학적인 태도를 취하는수가 전연 없지 않었다。그 언덕에 있어서 우리大學에서 과고 들어가는 정신적 바이러스는 우리大學에서 용감히 소멸시켜야 하겠다。

開校直後에 우리는 亡國의 쓰라림을 겪었고 國權喪失과 더불어 日帝의 무자비한 소위 朝鮮統文化말살을 이어 우리는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우리의 佛敎宗團이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이와같이 큰데 비례하여 그 밖아나가는 것은 우리는 亡國의 쓰라림을 겪었고 國權喪失과 더불어 日帝의 무자비한 소위 朝鮮統文化말살을 이어 우리는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유학과 소위 朝鮮寺刹숭의 악법으로 엄격한 유혹적치하에서 가냘픈 法燈을 이어 나가는 일이 그리 용이한 일이 아니었다。

우리의 佛敎宗團이 그때도 크게 그 본래의 使命을 다하지 못하고 관리가되는것이 아니었다。

統文化들 이어왔던것은 本學園의존재와 그활동에 크게 기여함이었다。

우리大學과 敎團의 이러한 공적은 우리學生들이 흑은 민중의 서로에서, 혹은 해외와 寒村에 이르기까지 佛敎精神을 깊이 심어 주었고 그리고 민족의 주체의식을 고취하는 한편 한국의 文化를 지키고 발전시키는 처절한 노력이 있었다。

8·15의 民族解放으로 2차大戰末에 되찾게 되었던 우리한민족은 다시 부당하게 폐쇄되었던 우리한민족은 다시 체의식의 활동을위하여 반갑기 이루었다。그러기에 一般國民은 本大學의 활동과 발전에 끊임없는 박수와격려를 보내는데 인색하지 않었던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本大學에 對한 一般國民의 관심이 크면 클수록 사명감이 가중되고 이 加重된 使命感에 威壓되어 자칫하면 자기본연의 자세조차 망각하고 거센 세파에 휩쓸려 校道를 나가는 위험도 없는 것은 아니다。

特히 해방후에 몰밀려 오듯 들어오는 서구문물일체의 풍조는 자칫하면우리의傳統文化를 멸시하는 경향으로흘러 우리 自身의 사명감이 흐려져 있을뿐 아니라 심지어는 자학적인 태도를 취하는수가 전연 없지 않었다。그 언덕에 있어서 우리大學에서 과고 들어가는 정신적 바이러스는 우리大學에서 용감히 소멸시켜야 하겠다。

限界가 있는 것이었다。

그들이 내세우는 反對의 名分도 國民的 持論과 부절을 내세우는 反對의 名分도 國民的 持論과 부절을 내세우는 反對의 名分도 國民的 持論과 부절을

日本의 스튜던트·파워

現地에서본 그 內面

金知見

『東京大學을 차라리 동물원으로 만들어라』—이 말은지난해 日本에서 근 1년동안 일어난 이른바 左翼學生들의 폭력과 亂動으로 빚어진 東京大學紛爭에 대해 日本의 한 作家가 한 말이다. 日本에서의 이러한 일련의 學生운동은 日本國內에서도 그 여론은 종잡을 수 없으며 이 시간에도 계속되고 있다 이 記事는 그러한 상황을 現地에서직접 체험한 本校 金知見 동문이 그 內面을 파헤친것이다. 金同門은 現在 東京大學 大學院에서 佛敎學 博士과정에서 연구생활중이다. <편집자>

하이덱카는 人間疎外의 문제를 「近代的人間의 故鄕喪失」이라는 말로 表現했다고한다. 한이덱카뿐아니라 十九世紀이후 近代社會가 발전되어오면서人間疎外의 度가 깊어가는 것을 직감하고 주목해오면 사상가들의 數는 결코 적지 않았다.

그런데 이 人間疎外라는 말은 日本에선 생생하게 피부로 느껴지게 한다. 敗戰以後로 拂拭되어 社會組織은 새롭게 되고 科學技術은날로 發展해 왔다. 어떻게보면 거의 모든面에서 보장되어왔다. 이들을 타서 一部大學生들은 「소수의 左傾青年들이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선동적 파괴적인 데모를 더러 하게된다. 대화에는 힘이 없고 論理로 나서고 論理에는反 戰爭이 主流를 이룬 나라들의 理想社會같은 나라에서 그들 교수들은 思想的根源에 대해서도 長時間 파고 들었다. 그중 특히 梅原猛(立命館大·哲學) 교수等의 분석은 매우 주목을 끌었다. 對談대에서 要點만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戰爭하기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歷史를 領導하는 主人公노릇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戰爭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그 발전은 原·水爆을 만들어가고 내고 있다. 이러한 가진 나라) 無批判的으로 우리는 理解 버리게된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수들은 그들 교육의 思想的根源에 대해서도 들었다. 그중 특히 梅原猛(立命館大·哲學) 교수等의 분석은 매우 주목을 끌었다. 對談대에서 要點만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戰爭하기를 좋아하는 나라들이 歷史를 領導하는 主人公노릇을 해오고 있다. 그리고 戰爭을 통해서 과학기술이 발전되고 그 발전은 原·水爆을 만들어가고 내고 있다. 이러한 가진 나라) 無批判的으로 우리는 理解 버리게된다. 그런데 이 나라들은 수두룩한 左傾學生들의 思想的根源에 대해서도 長時間 파고

狀況속의 季節

金 惠 純

1

흔들리는
꽃 숨 언저리로
봄 사람이 안부를 작한다。]
都市는
일제히 窓을 열기 시작한다。'
차단되었던 空地를 지나 와
나직하게 고개를 들고 있는 빛,]
한 폭 빛으로 치장하는
都市의 사람들은 향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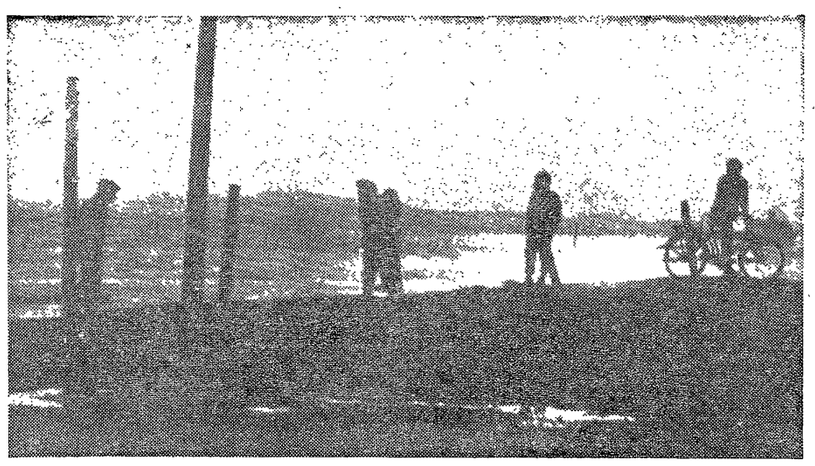
2

모두가 外出한 室內에서
봄오리 터지는 소리, 소리。]
그 解夢의
알맞은 주변과
닮은 낱말들을 다듬질한다。]
이렇듯 開花를 향하는
조용한 우리들의 움직임이
더러는 어려워 질 때
花瓶 가득 가득 출렁이는 비다여。]
벌람하는 음악이여。

3

사람들은
하얀 木棉에 건너 앉아서
나비를 날린다。
꽃의 가슴팍에
至純한 사랑을 부어 주는 입술
화려한 고독을
가끔 윤을한까。
온 몸을 抒情으로 감아 온 너
만발하는 나비, 나비 날개에
잦근이는 목숨。
가슴, 그 작은 가슴구석엔
색깔있는 내일이 자리 한다。]
그리하여
들판이며 山이며 江口에서
사람들은 온통 점령하는가。'

<哲學科>



○…강변에 日沒이 내리면 길손의 발길이 바빠진다。【沈鍾元기자찍음】

春雨한 情景

신 세 규

내가 말하고 싶은 형서정이 겨울도록 그리
겨 분다。 위지는 그림책을 펼쳐보
상은 꽉 사람이라고는생 고 싶다。 사랑과 미움을 토달밀에서 勤親가는 여인네들에게는
각하지 않아도 좋다。부 초월한 숙연한 자세그대 날을 그려 엄마가 되는
특이 그렇 양이면 지나 로를 지닌 태초의 음향 돈부들의 열들에 못이겨
용히 간 그 옛날 가슴속에조 간 그 지직하고 마음으로 을 간직한 자연을 사랑 닦으며 잔주름진 얼굴사
직하고 아릿다운 소녀 하여 마지 않기에 이소 이로 고달팠던 세월을 낙
애기했던 나는 보는 풀을 간히 情景의 예찬 고향을 등진 외로운 나
의 영상을 되살려 그리움을 찾느니 보다는 그네는 향수의 포로처럼
것도 과히 쉽지는 않으 에 붙이려 한다。 손을 멈추고 상념에 잠 차라리 소박한 자연속에 눈앞에 이슬을 장만할것
니까 많이다。 하늘에 별무리가 녁하는에 늘감이 빨간 이 거룩한 순간은 사랑 이 기적같이 와서는 꿈같은 형
또한 하늘 노을은 아무리 할아도 목 이요。 出嫁한지 수년만에 이 정이 넘쳐흐르는 素
은가로처럼 뿌려진 무질 서 이 거꾸로 뿌려 이 거꾸로 뿌려 복장이 사라지는 꿈같은 朴 信 淳

隨筆

自然은 生의 躍動·眞理의 具現 理法, 鳥瞰할 줄아는 人間 돼야

車 溶 吉

옛날에 力拔山 氣蓋世하던 인간도있었는지 모른다。그러나 대자연의 壯觀앞에 인간은 매우 약하고 초라한 존재임을 느낀다。山을 뽑는 힘과 세상을 덮는 기세등가 젊던 그 인간도 측량이 자연질서앞에는 두 무릎을 꿇었을 것이고 자연을 「정복」한다느니 운운하면서 달나라에 꼴 착륙하려고 하는 과학도 뒤점어 놓고 보면 自然理法의 이용지 순응에 지나지 않는 것을 마치 자기들이 하나의 정서를 「창조」라도 한것처럼 엄폐하여 우쭐대고 있는데 지나지않는다。생을 보다 신상하려는 인간의욕구는 확실히 과학을 필요로 하고 귀하게 여긴다。그래서 그런지 요사이 과학을 내세워 인간의 「자유스러운 思考와 行爲」를 거의 저돌적으로 沒知시키려는 不肖한 탐아와 같은 과학의 독단이 횡행하고 있다。어떤 탐아가 지나가는 발자국에남은 것이 소위 「매카니즘」과 인간소외와 더 큰 불안따위다。탐아가 끼치는 영향은 탐아적인 것뿐이다。천한 탐아가 진리를 다 알리 만무하다。

인간은 흡더 겸손해지야 한다。白楽天이나 蘇東坡같은 詩人은 참으로 욕릉하고 아름답고 겸손한 인자이다。자연의 미를한층 더해준 사람들이기에 맑이다。천지를 化育하던 造化翁은 자연을 정복한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연과 더불어 化育했것이며 無空妙有에서 白雪하던석가여래는자신이 眞空妙有임을 자각했던것이며、무리들의 도움을받아권력을 휘두르던 최인들에 의하여 십자가를 진 眞愛의 化身에수도한 자연을 정복한다는 말을하지않았고、자기자신이 얼마나 약하며 무지한 존재인가 알라고 모르는 「쏘피스트」들을 향하여 너스스로를 알라고 외치던 「소크라테스」도한 소박한 자연인이었다。

산을 「정복」하겠다고 산에 오르는 사람이 만약 있다면 그는 분명히천한 사람이다。풀은 봇이천하면 그렇동이천할수밖에없는것은 산의 秀麗하고 俊秀하고 固玄한 산을 「정복」하려